

2026.3.26.(목)

을지로위원회 사무국 Tel 02-6788-3201·3631 / Fax 02-6788-3635
차도순 국장(을지원국) / 김대경 보좌관(민병덕 의원실) 02-784-9540

유가 급등기 가격 전가 구조 개선 상생협력 구조 만들어야 민주당 을지로위, 석유화학·정유업계 사회적대화기구 출범

- 유가 급등 시기마다 반복되어 온 가격 전가 문제와 불공정거래 관행으로 플라스틱 제조업, 주유소 업계 어려움 가중
- 사회적대화기구 통한 가격 결정구조, 수급 정책, 거래 관행 점검하고 제도개선 방안 마련
- 민병덕 위원장 “투명하고 공정한 가격 결정 과정을 통한 상생협력 구조 만들어가야”

2026년 3월 26일 (목) 09:00,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민병덕위원장)는 3월 26일,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산업 전반의 가격 전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석유화학 업계 및 정유·주유소 업계와 사회적대화기구를 동시에 출범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

최근 국제유가 급등으로 정유사의 국내 공급이 축소되고, 이에 따라 석유화학 업계에서는 에틸렌 생산 중단 및 감산 사례가 발생하는 한편, 합성수지 가격이 약 50% 수준까지 급등하는 등 원재료 가격 상승과 공급 축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 위기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플라스틱 중소 제조기업의 경우 원재료 가격 상승분이 납품 단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수급 불안정에 따른 생산 차질, 납기 지연, 수익성 악화 등 경영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정유업계 또한 원유 가격 상승이 실제 도입단가와 재고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신속하게 공급가격에 반영되고, 전속계약 및 사후정산 구조 등으로 인해 주유소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회와 업계,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대화기구를 통해 가격결정 구조, 수급 정책, 납품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석유화학업계 사회적대화기구는 LG화학, 한화솔루션, 롯데케미칼 등 유화와 관련 중소 기업, 대기업, 관계 부처가 참여해 가격 및 수급 안정화 방안, 납품대금연동제 실효적 적용 등을 논의한다.

정유·주유소 분야 사회적대화기구는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업체와 주유소업계, 관계 부처가 참여해 공급가격 산정기준, 전속계약 및 사후정산 구조, 카드 결제 허용을 통한 유동성 확보 등을 논의한다.

민병덕 위원장은 “그동안 유가 급등기마다 불균형한 거래 구조 속에서 가격 전가는 반복되어 왔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중소 플라스틱 제조업체나 주유소가 짊어져 왔다”라며 “가격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납품단가 및 공급가격이 합리적으로 연동되도록 하여 상생협력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끝)

□ [참고] 출범식 사진

